

전주대 학생, 드론 스테이션 프로젝트로 중기부 장관상 수상

제16회 IE 경진대회서 전기전자공학과 '토르팀'의 '무선전력전송 활용 드론 스테이션' 금상

전주대 스마트에너지커플링사업단(단장 최준영 교수)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 강원도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된 제16회 IE(Intelligent Electronics) 경진대회에서 전주대 학생 '토르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금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전기전자공학과 4학년 이강우, 오재선, 이운경 학생들로 구성된 '토르팀'은 '무선전력전송을 활

용한 드론 스테이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최근 드론 택배, 드론 축구, 정보산업 등 드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유선충전을 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장시간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르팀은 무선전력전송(WPT: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기능이 있는 드론 스테이션(드론 정거장)을 제작했다. 토르팀은 효율적으로 전력을 전달하고 원격으로

조종되는 드론이 스테이션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적의 플랫폼 구조를 설계하여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 과전압/과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전압(CV) 및 정전류(CC)회로를 구성하여 리튬이온배터리의 충전 안전성을 높였다.

팀장 이강우 학생(26)은 "이번 경진대회로 전력 전자분야를 한층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EV 자동차에 무선전력전송 장치를 적용하는 노력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를 전력전자 선진국으로 이끌고 싶다."라고 수상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라북도 산·학·관 커플링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캡스톤디자인 과제에 참여한 학생이 연구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전주대 전기전자공학과 김은수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낮은 새벽까지 창의적인 시제품제작과 실험을 위해 열정을 갖고 노력한 결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IE(Intelligent Electronics) 경진대회는 산업 현장과 밀착된 전력전자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진행된 대회로 올해로 16회를 맞이했다. 매년 수십 개 학부 및 석사과정 학생팀이 참여하여 전자공학, 로봇공학 등 신기술개발을 위한 창의력을 겨뤘다. 올해에는 지정종목 19개 팀, 자유종목 31개 팀이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7개 팀이 수상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스마트에너지커플링사업단은 강원도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된 제16회 IE(Intelligent Electronics) 경진대회에서 전주대 학생이강우, 오재선, 이운경 학생으로 구성된 '토르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금상)을 수상했다.

고창서 청문살, 바른 공사 생활 다짐 토크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최근 휴가철을 맞아 각 중 의무위반을 근절 경찰공무원으로서 바른 공직생활을 이어가자는 토크를 펼치고 있다.



공직자 비위 사례를 공유 되 짚어 반면교사 삼아 직원 각자가 초심을 잃지 않고 공직자로서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서 중앙지구대, 하절기 재난대비 준비 완료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 중앙지구대(지구대장 이동권)는 9월 다가오는 하절기 물놀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차 탑재장비 일제점검 및 특별순찰을 실시했다.



지구대는 이날 소화기, 우의, 폴리스라인, 구명환, 구명조끼 및 로프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용 하절기 계절장비를 탑재하고, 장마철 침수구역 특별순찰을 실시하는 등 재난대비 활동에 힘을 쓰고 있다.

하절기 장마 및 물놀이 대비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남원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편, 이동권 중앙지구대장은 "하절기 장마 및 물놀이 대비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남원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 풍산면 김정순 할머니 클린순창 조성 앞장

순창 풍산면 반월리에 거주하는 93세 김정순 할머니가 최근 버스 승강장 청소를 통해 클린순창 조성에 앞장서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정순 할머니는 반월리에 설치된 승강장을 매월 1회 거미줄제거, 바닥청소, 걸레질 등을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클린순창 조성에 동참하고 있다.

김정순 할머니는 풍산면 지역발전 협의회 임원회의의 모친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풍산면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집안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에 풍산면은 직원들이 참여해 전 승강장을 대상으로 거미줄 및 불법 광고물 등 제거와 청소를 실시하고, 노후 된 시설을 정비하는 등 군민들이 깨끗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경찰, 청렴 워크샵 개최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는 지난 6일, 직성면 예방천리 마실길에서 청렴동아리(옥천골)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 및 인권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산상 워크샵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경찰이 지향하는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예방천리 마실길을 걸으며 직원 간 동료애를 확인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김태형 서장은 "청렴동아리 회원 한분 한분이 주축이 되어 청렴한 경찰, 국민들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찰상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장수군 산서면 주민자치위원회, '꽃향기 가득 걷고 싶은 길' 조성

산서면은 지난 6일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 시기에 앞서 걷기 좋은 농로를 중심으로 여름 꽃을 식재하여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해주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 꽃포 심기에는 산서면 주민자치위원 27명과 노인일자리 어르신 15명이 함께 나서 메리골드, 백일홍 2종류의 꽃 4,000본을 식재했다. 꽃 식재를 통해 산서다목적체육관에서 대청교까지 약 1km의 농로가 형형색색으로 물들어 싱그러운 여름기운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서면은 현재까지 산서면소재지 및 주요 도로 옆에 페추니아, 메리골드, 백일홍 및 사부비아 등 다양한 꽃을 식재했으며, 앞으로도 해바라기, 꽃양배추 등을 식재해서 사시사철 꽃향기 가득한 산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